

# 전남 부동산이 뜬다

전남지역 부동산이 뜨고 있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고 각종 대규모 기업유치가 잇따르는 등 전남 발전 청사진이 구체화되면서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토지거래량은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12만4천726필지였으나 2007년에는 13만5천194필지로 1년만에 8.4%가 늘었다. 또 올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토지거래량은 6만6천841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6천330필지에 비해 18.6%가 증가했다.

토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도 여수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1년 새 30% 이상 경증 뛰어났다. 지역 부동산 중 관심이 높아진 곳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된 여수지역이 대표적이다. 박람회 개최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0년여 동안 방치되다시피 해왔던 돌산 우두리 택지지역이 대거 분양되는 등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엑스포 예정

**여수박람회 유치·서남권종합개발 '호재'**  
**작년 토지 거래량 13만5천필지 8.4% ↑**  
**부동산 값도 1년새 30% 이상 크게 뛰어**

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중인 남쪽해안의 부동산값이 쏠쏠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삼성그룹 이건의 회장이 2만5천여 평의 땅을 매입한 소라면 일대와 통일그룹 산하 (주)일성이 대규모 해양레저타운을 건립한 화양면 일대의 토지도 3.3㎡(1평) 당 35만원대를 호가하는 등 최근 1년 새 땅값이 30%이상 큰 폭으로 올랐다.

또 넓은 대지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것도 부동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전남에는 이미 156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영양과 영광, 고흥, 보성, 해남 등지에 273만9천㎡의 부지를 차지한 채 가동되고 있다. 전남에는 지난 5월30일 기

준 모두 602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설립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로, 모든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전체 부지는 1천80만여㎡에 이른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태양광발전예에 의한 수익과 함께 중앙기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한 '일석이조'의 수익모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11개 기업과 무려 5조1천여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것, 그리고 전남 중부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각종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산업과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사업체들이 수도권이 아닌 전남에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28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시행되고, 목포와 무안, 신안 등 전남도 내 6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지역에 비해 저렴한 땅값과 좋은 입지, 그리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남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소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낙후한 전남개발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시스템에어컨의 구조와 작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 전문 전시장'이 24일 삼성광주전자 내에 개장돼 관련기업인들이 관람하고 있다.

## 삼성광주전자 전문 전시장 개장

### 시스템에어컨 B2B시장 공략

(기업간 전자상거래)

삼성광주전자가 시스템에어컨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24일 글로벌 트레이딩센터 1층에 '시스템에어컨 전문 전시장'을 개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광주전자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교육·영업장과 함께 전시장에 이르기까지 3대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함으로써,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시스템에어컨 B2B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360여㎡(110평) 규모의 전시장

에는 시스템에어컨 주요 제품 뿐 아니라 삼성 초소속 미니어처를 제작해놓고 있어 빌딩공조에 적용된 시스템에어컨 솔루션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종합공조 구역은 향후 가정에서 사용하게 될 시스템에어컨과 하우스 시스템에어컨 원격관리 서비스인 RMS(Remote Management System)와 실내의 향(香)까지 조절하는 향 공조분야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또 투명 유리를 통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이는 전시'와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 등 고객 지향의 전시공간을 구축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B2B 고객의 특성에 맞춰 교육·기술 세미나, 생산라인 견학, 남도 문화체험으로 이뤄진 '스타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구성해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B2B 영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지역 땅값 상승**  
광주 0.56% ↑  
전남 1.14% ↑

올 상반기 광주·전남은 여수 등 일부 지역의 땅값이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하향안정세가 두드러졌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광주의 땅값 상승률은 0.56%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2.71%)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땅값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또 이같은 상승폭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5%대)의 10분의 1수준으로 광주의 자산가치 하락세가 뚜렷했다.

전남도 상반기 땅값 상승률이 1.14%에 그쳤다. 그나마 여수의 땅값이 소폭 강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은 '제자리'를 지켰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68%로 가장 높았고, ▲서울(4.04%) ▲인천(3.05%) ▲경기(2.87%) 등 수도권의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암송아지값 석달새 26% 급락

미 쇠고기 수입재개·사료값 상승 여파  
'생산안정제' 발동 여부 축산농가 관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사료값 인상 등의 여파로 산지소 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암송아지의 경우 140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정부의 가격보전기준을 20만원 이상 밑돌고 있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지급할 전망이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각각 16.0%, 27.3% 낮고 최근 3개월 하락률도 18~19%에 이른다.

소값 폭락세가 이어지자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 여부에 축산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가격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송아지 값이 150만~160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3분기(7~9월)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연환스

원에서 156만2천원으로 27.9% 곤두박질쳤다. 4월 이후 24.3%, 최근 한 달 동안 10.4% 하락했다. 600kg짜리 암소와 수소의 경우 현재 각각 401만8천원, 3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7% 떨어졌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각각 16.0%, 27.3% 낮고 최근 3개월 하락률도 18~19%에 이른다.

소값 폭락세가 이어지자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 여부에 축산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가격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송아지 값이 150만~160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3분기(7~9월)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연환스

**지역난방요금 오른다**  
지정부, 내달께 추진

전기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요금도 다음달부터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 현안대책'에서 지역난방 열요금을 연료비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역난방요금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인상이 발생했으나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조정하지 않았지만 고유가가 지속돼 하반기 요금 조정시점인 8월에 요금인상 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연탄가격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을 안정시키고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환스

**중소 공제사업기금 최대 2%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자 중 최대 2%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부터 정부출연금과 가입자 부담금으로 조성돼 부도어음대출(거래처 부도발생시),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 단기연장금대출을 납입부금의 10배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쇄부도방지기금이다. 전국에서는 1만6천여 개 중소기업체가 가입해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은 800여 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중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대출금의 92%가 담보 및 보증여력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

어 시중은행의 중기대출심사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으로 해소에 기여해왔다. 지난해에는 지역내 200여 개 업체에 15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제기금에 가입돼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은 1%, 단기연장자대출은 2%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금융권에 외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고무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자지원에 나선 광주시는 올해 6월까지 80여 개 업체에 3천500만원을 보전했고, 올해 3월 시작한 전남도는 25개 업체에 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신보재단 새 이사장**  
김제욱씨 선임



광주신보증재단 새 이사장에 김제욱(60·사진) 전 광은비즈니스(주)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박광대 광주시장은 24일 최근 광주신보증재단 이사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를 이사장에 임명키로 했다.

광주은행 목포지점장과 영업부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인 김 내정자는 25일 박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다음달 1일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촌고, 화양고, 불거동고, 백지문명**

신촌고: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화양고: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불거동고: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백지문명**

백지문명: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2008년 10월 개교 예정.

문의: 011-804-5239

**재혼만 10년!**

재혼만 10년! 재혼만 10년! 재혼만 10년!

문의: 527-3388